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NEWS LETTER

July of 2022 Vol.48

소식지

의과대학

발행인 김승후 편집인 도경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s://medulsan.ac.kr> 소식지 홈페이지 <https://medulsan.ac.kr/eletter>



동해 배경의 강릉아산병원 천경 : 드론촬영
- 흉부외과학교실 박종빈(강릉아산병원)

02 [Interview] 2022 신입교수들을 만나다 2 07 [의대소식] 2022학년도 7, 8월 학사 운영 08 [특집기사] 2023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내용은? 10 [학생기자가 간다] 개교 34년, 우리 의대 출신 첫 학장을 만나다 14 [합격수기] 신입생 대상 합격후기 공모...총 6명 선정 20 [건강칼럼]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급질환 대처법 21 [의대소식]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21 [의대소식] 베트남 하노이이대, 우리 의대 방문

신임 교원들 임용 소감 및 우리 의대 발전 방향은?

전임 교원 32명 신규 임용

우리 의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총 32명의 전임 교원들을 신규 임용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교원들은 서울아산병원 22명, 울산대학교병원 및 강릉아산병원 10명 등 총 32명이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신임 교원들의 임용 소감 및 우리 의대 발전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한 생각들을 Q&A로 소개한다.



신항식 부교수
융합의학교실 (융합의학과, 서울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우리나라 최고의 임상의로 기관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 임용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영예와 동시에 우리 병원이 짊어진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생각을 하니 기분 좋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의학은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고 무수히 많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중개연구를 통해 임상적 미충족 수요 (unmet needs)를 만족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하나의 의료 기술은 50억 명 전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활용성 높은 의료 기술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워낙 길다보니 건강이 염려되어 운동

을 시작했습니다. 뒤틀린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좋다는 말에 필라테스를 하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 근력과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되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시면 한 번쯤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 연구시 기본 철학은?

연구에 대한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것을 연구할 것, 두 번째는 흥미로운 것을 연구할 것. '연구'의 최종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의 우리 삶에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실험실 내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보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통해 현실의 삶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발굴하고 구현하는 것 또한 연구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흥미롭고 재미있게 연구할 주제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재미있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의미를 주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것'과 '확실한 것'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은?

많은 교육이 보고 듣는 방법 (눈과 귀)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데 저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머리와 손)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교육에는 실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용까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론에 대한 교육, 실습, 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연계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며 타인에게 자신의 방법을 전수할 수 있게 될 때, 즉 지식의 흐름이 내향에서 외향으로 바뀔 수 있게 될 때 교육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으시다면?

각 나라마다 장점이 뚜렷해서 여러 나라와 장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느낀 문화와 예술, 스위스 체르마트에서의 트래킹,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의 은하수, 몰디브의 투명한 바다 등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여행이란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경험할 것이 많구나”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울산대 의대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의학 교육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점점 가속화 되는 의료기술, 과학기술의 변화와 다학제 협력 강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폭넓은 분야에 대한 열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대는 소수정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깊이를 가지면서도 보다 민첩하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 (quantum jump)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혁신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퀀텀점프하며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 의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을 이해하는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의료인과 같이 융합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융합 교육 및 연구, 학제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임용은 한 순간에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업적을 쌓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주로 혼자 연구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을 잘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적을 만들고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은 참 고독한 과정인데 이 고독을 즐기며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임용 단계에서는 서류 제출과 면접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초조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용 지원전 꼼꼼하고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즉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이 기다림을 해소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 (노하우)

한 명의 교수가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교수 임용에는 최대한 많은 상수 (constant)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논문, 특허와 같은 정량적인 실적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insight)를 찾는 능력이나 적응력, 연구자간 네트워크 등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끈기와 지구력이 없이는 이상의 것들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딱 한 걸음씩, 일보전진 (one step forward)하시다 보면 어느새 목표하던 곳에 다다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을 통해 처음에 의대에 진학 하셨을 때 가지셨던 꿈과 목표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의학과 과학기술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을 내다볼 때 과학기술을 잘 아는 의료인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의료를 선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은 얘기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류와 소통을 기대합니다.



조민수 부교수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서울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울산의대의 신입 교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도 됩니다.

훌륭한 스승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울산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부정맥 분야는 전반적 인구 고령화와 함께 환자 수와 진료 범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 신호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및 인공 지능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한 실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부정맥 진단 및 치료들 또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진료와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울산의대 교원으로서 학생 교육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술 시간동안 항상 방호복을 입어야 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서 몸이 힘든데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결과를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 연구시 기본 철학은?

저의 생활신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고, 환자들에게는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이고 싶으

며, 동료 의사들에게는 신뢰받는 동료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면, 어떤 의미로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은?

많은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주 시도하다 보면 바라는 것의 100%는 달성하지 못해도 70%는 달성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100%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울산의대는 이미 전국 최고의 의대이며, 제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승님들과 함께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생들의 능력이나 기본적 교육 시스템은 이미 한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 시절부터 본인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를 찾고, 그 부분을 보다 깊이 파고들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임용이 되기 전까지 과정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불안함을 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 (노하우)

울산의대의 선발 과정은 지극히 객관적인 요소들로 평가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적들도 잘 만들어 두는 것이 평가를 잘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되어 아직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학생 및 선생님들의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심

전도나 부정맥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묵 조교수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서울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저는 2010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2015년 군의관 대신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알코올성 지방간 및 간섬유화 등 간질환에 대한 기초 및 중개연구를 하며 박사 학위를 마쳤고 2019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로 합류하였습니다.

2년간의 임상강사 수련 후 작년에 촉탁임상조교수로 1년간 근무하였고, 올해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의대생 때는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꿈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고 감사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신입교원으로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우선 서울아산병원이란 임상의로서는 천혜의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을 발판 삼아 임상의로로서 간질환 분야의 대가로 성장하고 싶고, 연구면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잘 살려 기초 및 임상연구에서 간질환 연구사에 한 획을 긋는 좋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의대 교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늘 정진하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교육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오래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어 고민하던 차에 '크로스핏'이란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크로스핏은 일반적인 피트니스처럼 특정 근육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10~20분 정도의 고강도 훈련을 통해 다양한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기록경쟁을 통해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크로스핏을 시작한 뒤 근육량 감소 및 체중증가 → 기초대사량 감소 → 체중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근육량이 증가하였고, 체중이 다시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운동량 부족 및 체중 증가 등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크로스핏을 추천드립니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 연구시 기본 철학은?

저는 사람 사이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자-의사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환자 진료 시 환자분이 굳이 여러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저를 찾아왔다는 점을 제 스스로 늘 상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저와의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Q.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은?

제 교육관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철학은 '동기부여'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살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멘토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을 통해 적절한 동기부여를 받으며 성장하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라면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멘토라면 어떻게 하면 후배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으시다면?

저는 미국 뉴욕을 좋아합니다. 예과 2학년 때 예일대로 6주간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처음 뉴욕을 가 봤고, 본과 4학년 때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에 1개월 간 clerkship, 전공의 4년차 때 NYU Langone Medical Center에 1개월 간 observership 참여를 하여 총 체류기간을 합치면 약 2개월 반 가까이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농담 삼아 제 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데, 뉴욕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인 거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답게 없는 것이 없

고, 각각각색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활기찬 도시인 뉴욕은 꼭 한 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울산의대는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가장 빠른 발전을 한 의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CME와 같이 혁신적인 교육법을 시도하는 등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의대 중 하나입니다. 향후 울산의대가 의학교육 패러다임을 앞장서서 바뀌어나가는 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제적인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울산의대 졸업생들의 진로가 더 다양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과 4학년 때 가능하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하버드, 존스 홉킨스 등 해외 우수 병원으로 연수의 기회를 주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 (노하우)

제가 의대생일 때를 돌아보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님들을 보며 “내가 과연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자리인데 한걸음씩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며 걸어오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의대 선배 교수이신 임태환 전 의학한림원 회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늘 정진하십시오. 정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충분히 갑니다.” 다른 노하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늘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Q.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의대생일 때를 돌아보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만큼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시절인 거 같습니다. 비교적 친숙한 문장이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문장들이 있습니다. “Amor fati memento mori et carpe diem”. 인생이란게 살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순탄치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프랑스 작가인 로맹 가리는 회고록에서 “내가 삶을 산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산 것”이란 표현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 얽히고 얽힌 상황들로 인해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인생의 유한성을 늘 생각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영중 조교수
영상의학교실 (영상의학과, 강릉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강릉으로 오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도 쌓고 의과대학에 신규임용이라는 목표도 이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기억에 남는 교수가 되고 싶고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사회인 농구 활동을 했었고 아마추어 대회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머리를 식히고 자신의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 연구시 기본 철학은?

환자 진료나 임상은 어찌 되었든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고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완벽하게 치료는 불가능할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진심으로 솔직하게 환자들을 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환자에게 좀 더 잘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찾다 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은?

이미 너무 훌륭하고 똑똑한 학생들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잘 외우고 시험 잘 맞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높이 나아가려면 본인이 계속 흥미를 잃지 않고 궁금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으시다면?

펠로우 동기들끼리 일본에 가서 돼지한테 여러가지 시술도 해보고 끝나고 나서는 주변역 근처에서 맥주마시고 놀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교육의 질과 최고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병원에 잘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울산의대 출신하면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모두 노력해주는 인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대라면 결국에 좋은 의대 교육을 떠올릴 것 같고 임상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이나 연구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적응하는 일이 어려웠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논문을 기획하고 쓰는 일이 제일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상황을 너무 비판하지 말고 본인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 (노하우)

어떠한 일이든 혼자서 다 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하우 중 하나라면 같은 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논문을 쓰고 peer-review해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의대 공부 너무 많아서 지칠 거 같고 많은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부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본인이 의지와 끈기만 잘 가지고 있다면 울산의대 출신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만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은 얘기

강릉아산병원에서도 본인의 장기와 역량을 잘 펼칠 수 있고 여유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대소식

2022학년도 7, 8월 학사 운영

의예과 1학년	하계방학 (6월 22일~8월 31일)
의예과 2학년	7월: 하계방학 (6월 27일~8월 21일), 8월: 구조와 기능
의학과 1학년	7월: 하계방학 (7월 4일 ~ 8월 14일), 8월: 소화기
의학과 2학년	7월: 하계방학 (7월 11일~8월 7일), 8월: 신경계
의학과 3학년	하계방학 (7월 11일~8월 7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실습
의학과 4학년	하계방학 (8월 15일 ~ 8월 21일), Subinternship 및 졸업시험 (실기 및 1차 임상종합평가)

*의대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내용은?

2022학년도 전형결과는?

우리 의대는 전국 최고 인재들을 선발, 훌륭한 의학도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88학년도 의예과 30명, 1996학년도 이후 4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후 2022학년도까지 총 35회에 걸쳐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이에 이번호에는 우리 의대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 결과와 2023학년도 변경되는 주요 입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우리 의대 2022학년도 입학전형 결과

2022학년도에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명의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여 수시에서 27명, 수시에서 이월된 3명의 인원을 포함하여 정시에서 13명, 총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 2021학년도 대비...삼수 이상 1명 증가, 재학생 2명 감소

2022학년에는 남학생 26명, 여학생 14명이 최종 등록하였다. 졸업년도 기준으로 최종등록자를 분석해보면 올해 재수생은 11명으로 2021학년도(11명)와 동일하며, 삼수 이상의 경우 9명으로 2021학년도(8명)에 비하여 1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재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22명) 대비 2명이 감소한 20명이 최종 등록하였다.

출신고교별로는 일반고/자공고는 24명, 자사고 8명, 영재학교 5명, 과학교 1명, 해외고 1명, 검정고시 1명 순으로 등록하였다.

▲ 수시 학생부종합(일반,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종합(일반) 전형(14명 모집)에는 313명이 지원하여 22.4:1의 지원율을 기록하였고, 학생부종합(지역인재) 전형(4명 모집)에는 58명이 지원하여 14.5:1의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 수시 논술전형

총 12명을 선발하는 수시 논술전형에는 1,728명이 지원하여, 144.0:1을 기록하였다.

▲ 정시

정시(가군)의 경우 총 13명(수시 이월 3명 포함) 모집에 48명이 지원하여 3.7:1의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2023학년도 의예과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의예과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이 개정(2021.9.24.)됨에 따라 의과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40%)을 준수하기 위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는 전형 및 전형별 선발인원에 큰 변화가 있다.

▲ 수시 학생부종합(지역인재) 전형 확대

기존 4명의 인원을 선발하였던 학생부종합(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되어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지역인재(기초/차상위) 특별전형 신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발하는 지역인재(기초/차상위) 특별전형이 신설되어 해당 전형에서 1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 수시 논술전형 대폭 축소

수시 논술전형에서는 기존 12명에서 9명이 감소한 3명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 지역인재(논술) 전형 신설

부산/울산/경남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논술) 전형이 신설되어 해당 전형에서 2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 수시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축소

기존에 14명의 학생을 선발하던 학생부종합(일반) 전형은 축소되어 총 1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학생부종합형			논술형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지역인재 (기초/차상위)	논술	지역인재 (논술)	
의과대학	의예과	39	10	13	1	3	2	10

수시모집 전형일정표

구분	학생부종합형		논술형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지역인재 (기초/차상위)	논술	지역인재 (논술)
인터넷 원서접수	09.13. (화), 09:00 ~ 09.17. (토), 18:00			
서류제출 (해당자만 제출)	09.13. (화), 09:00 ~ 09.20. (화), 18:00			
자기소개서 입력	09.13. (화), 09:00 ~ 09.20. (화), 18:00		해당 없음	
1단계 합격자 발표	11.18. (금), 16:00 예정		해당 없음	
전형별 고사일	12.03. (토)	11.26. (토)	11.19. (토)	
최종합격자 발표	12.15. (목), 16:00 예정			
최종합격자 가등록기간	12.16. (금) ~ 12.19. (월), 15:00 까지			
총원합격자 발표 및 가등록기간	12.19. (월) ~ 12.27. (화), 15:00 까지			
최종등록	2023.02.07. (화) ~ 02.09. (목), 16:00 까지			

정시모집 전형일정표

구분	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2022.12.29. (목) ~ 2023.01.02. (월) 예정
면접일자	2023.01.07. (토) 예정
합격자 발표	2023.02.06. (월) 예정
합격자 등록	2023.02.07. (화) ~ 02.09. (목) 예정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3.02.10. (금) ~ 02.17. (금) 예정

*세부사항은 2023학년도 울산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학부모님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에서는 울산의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발전방향, 잘하는 점, 개선할 점 등 울산의대와 관련된 내용 중 소식지에 게재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 내용은 소식지에 게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이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타문의 및 투고 :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소식지
(uucmnews@daum.net, 김영신 객원기자 : 010-3320-2624)

개교 34년, 우리 의대 출신 첫 학장을 만나다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 중요”

1988년 처음 우리 학교가 문을 연 이래로 울산의대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의과대학의 반열에 올라왔음은, 비단 울산의대의 구 성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개교 이후 3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2년 현재, 우리 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학교 출신의 학장을 선출하게 됐다.

지난 30년에 이어 앞으로의 30년에도 울산의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울산의대 2기 졸업생이자 생 화학분자생물학교실의 김승후 교수님. 학생기자 본과 4학년 김상영, 이재한 학생이 김승후 신임 학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Q 우리 학교 출신 중 처음으로 학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어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고, 학교에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부담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우선 이렇게 다들 좋게 평가해 주셔서 학장으로 당선된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다. 한 세대를 30년이라 하는데, 대학도 그런 경우가 많다. 30년 정도가 지나면 졸업생이 학교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된다. 그게 학교로 바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졸업생이 주요 보직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학교가 발전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예들을 다른 의과대학들에서도 이미 많이 봤다. 이렇게 학교가 중요한 시기에 제2의 도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다.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주인 의식, 책임감, 조직에 대한 충성도에 대해서 모두들 좋게 평가해 주셔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반면 격려와 응원을 받게 되어서 든든하기도 하다.

Q 선거 운동 기간에 만드신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이 소소한 화제가 되었다. 학생들에게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고안하게 되었는지요?

돈을 써서 만든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을 도와주신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다.

그 분들이 워낙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이고, 요즘 젊은 교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직접 작업을 다 해 주셨다.

젊은 교수님들을 목표로 한 것인데 학생들에게도 호평을 받아

서 기쁘다.

Q 올해부터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2차 병원 (보령, 정읍, 흥천아산병원)으로 실습이 포함되었는데, 이 과정을 만드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는 교육 부속 병원과 협력 병원이 잘 갖춰져 있다.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1, 2, 3차 의료기관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인데,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은 모두 3차 병원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강릉아산병원이 2차 병원이라서 1차 의료기관 실습만 조율하면 다 해결이 되었는데, 강릉이 3차 병원이 되면서 2차 병원 실습이 없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의료원 산하 병원이 다 2차 병원이니 그곳에서 실습을 한다면 그 지역별 특성도 경험할 수 있고 학생들 교육에 좋을 것 같아서 의료원에 부탁을 드렸는데 의료원에서 흔쾌히 도와주셔서 실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턴이 되어서 접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은 4학년 때 먼저 접하게 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 현황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Q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김상영)는 보령아산병원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과거에 탄광 지대이다 보니까 다른 실습 병원에서 볼 수 없었던 진폐증 환자를 볼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학습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령아산병원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응급실에 있다 보면 여름에 관광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인턴들이 파견을 가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도 접해보라는 취지로 학생들 응급실 당직을 많이 서게 부탁하고, 병원에서 하는 모든 activity에 대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올해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의 경우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의학과 3학년 과정에 포함되고, 신경과가 의학과 4학년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3학년부터 4학년부터 넘어가는 겨울 방학 기간에 외국 병원 실습을 나갈 때, 특정 과에 대해 실습을 돈 학생들만을 받게 한다고 확인을 부탁하는 병원들이 있었고, 그 중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를 요구하는 병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해외 학생 실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학년 때 이 과들에 대한 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이다.

예과 2학년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하버드 / UC 버클리 해외 연수의 경우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진 것으로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COVID-19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소가 되었던 건지, 만약 그렇다면 재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버드나 버클리를 가는 것이 입시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좋은 소문이 났다.

그게 좋은 유인책이 됐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연수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차에 COVID-19 때문에 연수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이다. 학장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연수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세상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예산으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학생 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2 때 하버드 버클리 다녀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견학 정도의 연수 보다는 본3, 4 때 다른 기관에서 실질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병원, 유관 기관, 혹은 전혀 다른 제약회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해외 연수를 못 갔던 학생들이 본3, 4 때 그런 기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학생 부서에서 조만간 학년별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UNIST와 울산의대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의과학자 교육 과정이 신설되어 예과 학생들이 앞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월 2일 취임하고 첫날 UNIST 총장 부총장님을 만났다. 보통 UNIST 출신들이 대학원 중심 대학이고 학부 교육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총장님이 학부 교육 강화에 공감을 하고 계신 분이고, 특히 의대와 단합하여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해주셨다.

예과 1학년 2학기 전체를 UNIST로 가서 6~7개 과목 (18학점 정도)을 의대생들과 UNIST 학생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들 것이다. 기숙사도 거기서 제공해 줄 것이다. 그곳에서 예과 때 기본적으로 의학통계, AI 등의 과목을 introduction 수준에서 배우고, 본과로 올라온 다음에도 UNIST와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졸업을 하고서는 UNIST 석사 과정을 밟을 수도 있는데, 곧 UNIST 석사 1년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다.

UNIST 1년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인턴이나 전공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병원과 연계해서 만들 것이다. 또한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더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의사과학자, 석사, 대학원 과정으로 20~25명의 T0를 가진 대학원을 만들 것이다.

물론 그 대학원에는 우리 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 졸업생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학부, 석사, 박사까지 전체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이는 국내 최초이며, 하나의 가장 경쟁력 있는 예과 하버드-MIT 모델이다. 이 모델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UNIST 학위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학위까지 가질 수 있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의사과학자가 되어 백신 등도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 울산의대와 UNIST는 지리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울산 지역의 의료 인프라, 과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대학으로도, 대외 명분적으로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UNIST와 상당히 의기투합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설명회를 해서, UNIST 석사 과정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참여시키려고 한다.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Q. 군 문제 같은 경우는 석박사를 하면서 해결하는 것인지요?

UNIST에 병역 특례 카드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다고 한다.

Q. LCME 교육과정에서는 장학금 수혜 여부를 학점이 아닌 포트폴리오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사람의 performance를 예측하는데 성적이 좋은 지표가 되느냐, 딱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알고 있다.

그래서 한 번의 평가로 인생이 결정되는 듯한, 그런 평가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가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또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performance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자는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의과대학 중에서 pass/fail을 하지 않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4~5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pass/fail을 하고 있다. 결국, 학생의 지식 측면의 진로 역량은, 학교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면 졸업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그 수준을 얼마나 잡는가에 따라서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지식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지식, 술기, 태도의 다면적인 평가를 통하여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평가를 위해, 5가지 영역의 세부 항목들을 준비하였고,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데려가도록 할 것이다.

가령 어떤 학생은 소통에서는 조금 부족한 학생이지만 전문직업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면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시키지 않을 것이다.

Q 상대평가 체제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각자의 점수가 학교 석차나 국가고시 등급, 면접 점수 등에 따라 정량적으로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LCME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 대학이 병원과 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국가고시 성적은 제공을 하지 않는다. 국가고시는 사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성적이나 석차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시원에서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미 절대평가를 시작했고, 우리 학교가 뒤이어 시작하게 되면 우리 다음으로 여러 의과대학들이 절대평가의 트렌드를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졸업한 학생들이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되면 병원들이 어떻게 선발할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아산병원이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 전국으로의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LCME 교육과정을 시작한 현 예과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이 되면 그 평가 지표가 명확하게 마련될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학생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들고 오고 있다.

지금은 아직 국가고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수월한 면이 있지만, 국가고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모든 병원들이 나름대로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내부적으로 학생들의 등수를 매겨서 병원에 제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학생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Q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각 조마다 배정되는 포트폴리오 지도 교수는 말 그대로 '지도교수'이다. 학생들이 졸업 성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만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학생들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평가만을 전담하는 교수님들은 5가지의 졸업 성과에 대해 각각 한 분씩 다섯 분이 따로 구성이 된다. 이 한 분께서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일관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Q 현재 예과 2학년 학생들의 세 번째 블록인 '인문사회 2'의 리더십 과정에서 조정과 등산을 비롯한 운동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문사회 영역은 고윤석 교수님이 서울아산병원 의료윤리위원장을 하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약 1년 반 동안 여러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인문사회 영역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하나가 리더십인데, 각 카테고리 별로 어떤 교과목 또는 액티비티를 넣을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고심을 했다.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들이 단체로 또는 조별로 할 수 있는 조정이나 산행 등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교수님들의 운영 경험이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수정이나 보완 또한 있을 것이다.

조정은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하는데, 조정을 하고 다음 날에는 바로 관악산 6시간 코스를 등반한다. 체력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선 한 번 해볼 예정이다.

특히 COVID-19에 의해 전혀 이런 종류의 액티비티를 못해보았을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정치권 및 시민 단체 등에서 울산의대가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소위 '울산의대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우리 학교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Q/ 제자이면서 후배이기도 한 울산의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학장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동문회를 찾아갔다. 30년이 지났고, 다음 30년을 준비하자는 것을 모토로 해서 선거에 출마했다. 학장이 된다면 동문들도 실질적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 1,000명 정도 되는 졸업생들이 모교가 도전을 받고 있는 중요

한 시기에 하나의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재정적 지원을 서울아산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울산의대를 위해 동문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소통 1〉 클래스룸이나 의학교육센터 등과 같은 교육 시설을 확대할 계획인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서울아산병원이 담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동문들이 시작하면 학부모들이나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교육 철학에 공감하는 외부인들도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생들도 울산의대의 동문인 만큼 학생 때부터 발전 기금을 매달 조금씩이라도 내는 것에 대해, 모교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모교가 꾸준히 발전하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기자단 김승후 학장 취재 후 소감



학생기자 김상영

사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학장님께 따로 질문 리스트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에 머뭇거리거나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해주시는 학장님의 모습을 보며, 학장님께서 앞으로 학교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정말로 명확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게 되겠지만, 제가 울산의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승후 학장님이라면 울산의대가 현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생기자 이재환

근래 학교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해 왔습니다. 곧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제게 해당하는 사항은 거의 없으나, 앞으로의 변화를 단편적으로만 전해 들어 학교의 미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이유와 목적, 절차,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각 학년의 주요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귀중한 기사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이루어진다”



작년도 합격수기를 읽어봤는데,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논술 전형이 없었다면 저는 울산대의대는 절대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울산대는 논술전형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논술로 간신히 합격한 제 합격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의대 중 하나인 울산대의대를 다니게 될 수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이상한 시작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과를 지망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참 이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그때도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진로희망은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책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내용 속에서 더 깊은 것을 읽기 위해서는 철학 서적과 비평서를 상당히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피노자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참 철학책 같은데 (스피노자는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철학을 기본으로 둔 신경외과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새로웠는지, 인간의 뇌와 뇌파를 통한 실험을 통해 감정의 원리에 접근하는 신경의학에 저는 매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 한권이 두권이 되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어느 순간 퍼뜩 “아 나는 이걸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학년 마지막 한 달 때의 일이지.

저를 죽이고 살린 수학에 대하여

말은 참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책 몇 권 읽고 이과를 옮긴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특히, 저는 이과의 빛과 소금인 수학을 매우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무려 1학년 1학기 수학 등급은 4

등급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그 과목 하나로 학생부종합은 거의 불가능해진 수준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종합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때, 저는 그 고등학교 남은 2년 동안 미친듯이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의 2~3배를 5~6배의 시간을 걸리면서 수학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논술을 합격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려면, 한 번에 완벽하게 풀어야 했죠.

결국 저는 꼼꼼히, 모순 없이 최대한 푸는 학생이 되었고, 그 대신 끝까지 수학을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어서, 처음으로 논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은 저에게 처음으로 수학이 되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선행을 했던, 수학 영재던 간에, 교수님께서 처음 만 들어낸 함수 앞에서는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되었죠. 그냥 제가 늘 했던대로, 꼼꼼하게 한 발자국 씩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의 최선이 되어버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술 문제는 울산대학교 문제였습니다. (결국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의 논리적 비약, 오류도 허락하지 않는 풀이와 생소하게 만들어진 함수나 그래프, 말 그대로 기본기에 철저한 학생을 위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기본기만 철저한 학생이었어요.

논술만을 위해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수학적 능력이 뛰어났다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들이 제게는 당연하지 않았고, 제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이해했고, 모든 과정을 증명하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수학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수학이 당연해 보이고,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그 당연한 것과 이해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는 영어

세상에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문학을 지망했고, 그래서 영어 원서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신경과 학과 의학에 관심이 생긴 이후에도 저는 대부분의 책을 원서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데이터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서술방식이 익숙했고, 울산대학교 영어논술 역시 책을 읽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영어 논술 필승법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경험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서가 힘들다면 논문을, 논문이 힘들다면 기사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Medical News Today나 Science Daily를 읽으면서 과학적 원리나 데이터를 소개하고 그 원리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런 형식의 글을 많이 읽으면 그저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서, 지문을 읽으면서, 마치 집에서 신문 기사를 읽듯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면 ~ 되는구나” 처럼 편하게 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저는 내신 성적 때문에 학생부종합으로는 일반과만 지원했고, 수능 성적도 의대를 지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정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오래된 것이 학생부 준비였고, 가장 열심히 한 것은 정시 공부였습니다. 사실 원하고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밤 새우며 공부를 해도 저는 전교 1등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었고,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한 수능 공부로는 제가 꿈꾸는 대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논술이, 기대도 안 해서 합격 발표를 찾아보지도 않은 논술이, 저를 울산대의대로 보내줬습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문학과를 꿈꿀 때 영어 원서를 붙잡고 읽지 않았다면, 수학 성적이 안 좋으니 학생부 종합을 포기했다면, 굳이 수업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어 원문 논문을 두 세개씩 읽지 않았다면, 수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대충 공부했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울산대 의대를, 혹은 그저 의대를, 그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최선은 어딘가 쌓여 있다가 필요할 때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작 - 김성우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 스스로를 위한 공부를 할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의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의대를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를 삼는 분위기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의해 의대에 지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무겁고 사명감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정답은 없다.

따라서 의대에 지원하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진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단순히 돈이 목적인 의대가 절대 아님을 기억하자.

수시 시험

전국에 고등학교 마다 학생 수준도 다르고 시험 난이도도 다를 것이다. 그에 따라 내신 성적의 치열함도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였다. 그만큼 실수라는 것이 용납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스트레스 또한 심했다.

내신 시험은 항상 1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 시험 1주일 전까지 모든 과목을 한 번은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 남은 일주일엔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기간으로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에 2번째 복습을 했다.

앞서 얘기했듯 학교마다 시험 출제 스타일이나 분위기는 천차 만별이다. 따라서 내 학교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부 관리

사실 메이저 대학교는 내신 시험보다 학생부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부는 3년 동안 자신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한 공부 중 의미 있는 것들을 농축하여 적어 놓은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신경과 퇴행성 질환에 관심이 많았다. 3년 동안 치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고, 당연히 학생부의 상당 부분이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일관된 관심을 학생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를 위한 게 아닌, 자기 스스로를 위한 공부를 할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 시험

울산대 의과대학의 학생부 종합 면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긴 시간동안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문제를 내려고 노력한다.

나는 총 60분 동안 면접을 진행했다. 총 5개의 방이 있었고, 그 중 4개가 MMI 출제 방, 1개가 서류 면접 방이었다.

MMI방은 한 방당 10분, 서류 면접 방은 2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한다. 아까 말했듯 꽤 수준이 높는데, 까다롭고 어렵기보단 독특하여 평소 그 학생의 생각을 최대한 교수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준비 방법은 '평소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 것'이다.

살면서 일어나거나 듣게 되는 여러 일들을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깊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나 또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반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긴 시간동안 생각해보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대인 관계에서 자신이 지녀야 할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것이 의사가 지녀야 할 자세와 윤리 의식과 이어지며 면접 때 자신도 모르게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작 - 이지영 (정시)

“수능은 마라톤과도 같아 매일매일 실력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해야”



생활수칙

제가 무조건 지켰던 생활수칙은 수면시간 6시간이었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신처럼벼락치기를 하거나 밤을 새서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은 마라톤과도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력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동안 계획해놓은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때에는 무리해서 끝내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능은 아침 일찍부터 보기 때문에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

하였고, 낮에 졸지 않기 위해 수면시간은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장 밤에는 해야 할 것이 남아있고, 다 끝내고 자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수면시간이 1시간 줄면 다음날 낮에는 2시간 쯤은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능은 당장 코앞보다는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봐야합니다. 처음에 수면시간을 지킬 때는 “수험생인데 이렇게 많이 자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면시간을 다 챙긴 이후에는 오히려 낮에 하루종일 개어있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밤잠 이외에는 졸지 않는 정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저는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모의고사는 저의 실력을 보여준다

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유형에 약한지, 긴장을 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의고사가 평소 공부한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잘 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틀리면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짚고 넘어갈 수 있고 다음에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수학 3점짜리도 틀려보고 과학 1번 문제도 틀려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를 점수고지용보다는 실수 확인용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에도 멘탈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저는 모의고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주요과목인 국어와 수학을 처음에 보다보니 두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 나중에도 못 푼 문제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찍은 문제까지도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문제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과목을 볼 때 전 과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오로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슬럼프

1년 내내 한 시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 번의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크게 왔던 때는 6월 모의고사를

치른 후였습니다.

과탐이 30점대가 나오고 찍은 문제가 많았어도 모의고사 점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모의고사를 치른 이후에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처음으로 등급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아직 6월인데도 불구하고 재수를 해야 하나 생각했었을 정도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위축되고 악순환으로 점점 그 과목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슬럼프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하다보면 저는 오히려 왜 혼자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 싫을 수 있지만 버티는 방법은 결국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너무 힘들 때에는 그날 해야하는 공부 중에서 가장 자신있고 쉬워하는 과목을 펼쳐놓기만 합니다. 연필을 안잡고 문제를 보면서 멍때리다보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풀리고 눈으로 푼 게 아까우니 연필을 들어 답만 체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문제를 풀어나가다보면 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잡생각 없이 풀어야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각자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잡생각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슬럼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수작 - 권지은 (논술)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진지한 목표로 이루어낸 입학”



나는 총 3번의 입시를 치러 울산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다. 특이한 점은 3년 모두 울산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접수했다는 점이다.

수학에 평소 자신이 없던 탓에 논술 합격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3년 내내 지원했을 정도로 가고 싶었던 울산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기뻐했다.

전혀 합격을 기대하지 않아 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나를 깨우러 오신 부모님의 들뜬 목소리와 합격했다

는 연락을 여기저기 돌렸던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벌써 입학 후 한 달여가 지나 합격 수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처음으로 제대로 준비한 세 번째 수능

수능을 세 번 쳤다고 하면 다들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건네곤 한다. 하지만 나는 세 번째 수능이 처음으로 제대로 준비한 수능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재수생 때도 의욕이 없었던 나는 기출 문제를 푼 과목이 생명과학 비유전과 지구과학뿐이었다.

그런 나의 행동이 문제라고는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국어, 수학, 영어의 기출 문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번의 수능을 치렀다. 당연하게도 의대를 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별로 슬프지는 않았다. “내년에는 과연 내가 공부를 할까?” 라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다.

“꿈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자 처음으로 진지하게 수능 공부에 몰입했다”

삼수를 앞두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던 내게,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스포츠 손상을 다루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유튜브를 보고 나도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딱히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뿐인 내게 진지한 꿈이 생긴 순간이었다.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다. 그 말씀대로 꿈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자 처음으로 진지하게 수능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

의예과 진학...수능 준비 필수

의예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준비는 필수다. 꼭 정시가 아니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이 아닌 이상, 의예과의 경우 대개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소 의예과를 정시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오던 학생이 수능 날 긴장이나 컨디션 난조로 최저학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 준비를 늘 꾸준히 해야 한다.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해야”

수능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있는 과목도, 없는 과목도 꾸준히 해야 한다.

나는 중학교 때 텡스 공부를 해서 수능 영어에 한 번도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1등급 비율이 낮았던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도 원점수 100점을 받았다.

하지만 수능 날에는 컨디션 문제로 간신히 1등급을 받았다. 자신 있는 과목도 수능 날 출제가 어떨지, 그 전 과목을 내가 못쳐서 멘탈 관리를 못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문제다.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능 성적

그렇게 수능 준비를 하며 자신감을 붙인 나는 결국에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능 성적을 받았다.

그 전의 두 수능과 달리 공부도 하고 모의고사도 잘 봤는데 그런 성적을 받았다는 게 속상했고, 과연 내가 의대에 갈 수는 있을까 막막해 수능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울었던 기억이 난다.

수능을 예상보다 못 보면 속상한 게 당연하다. 하지만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남은 논술이나 면접을 잘 준비하면, 입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수능 이후 논술 준비

수능 이후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이미 수능이 끝나 힘이 빠진 수험생에게 높은 논술 경쟁률은 공부를 열심히 할 좋은 핑계를 만들어준다.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될 거라는 달콤한 합리화가 자꾸만 논리적이게 들린다. 경험상으로도 논술 강좌는 결석생이나 지각생,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수능 이후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의 시간을 잘 보낸다면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울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이 있다. 수리 논술은 범위를 잘 숙지해 본인이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도 공부해야 한다.

수능 수학을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논술의 양식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해야 시험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의학 논술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 간결하고 논지를 잘 살려 답을 작성할 수 있는지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행복한 수험 생활하며, 좋은 결과 거두기를 바라며

입시를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되다. 대개 대학에 간 뒤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수험 생활이 반드시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학 이후의 삶만이 인생은 아니다.

수험생도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서 다음 해만을 그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한다. 수험 생활 속에서도 나름의 재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도 처음으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서, 삼수 중일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태어나서 올해가 가장 행복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수험생들이 나름 행복한 수험 생활을 하며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급질환 대처법

알아두면 도움되는 간단한 응급처치 상식



응급의학교실 정상구 (강릉아산병원) 부교수

요즘 야외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이다. 다행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면서 야외 활동을 만끽하려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아졌다. 그러나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즐거움이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사고나 질병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간단한 응급처치 상식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소개한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경우

상처의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해당 부위를 노출시킨 후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 이후 깨끗한 물로 씻어서 감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덮어서 추가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하며, 출혈부위를 정확히 확인 후 직접 압박해 주면 대부분의 출혈은 쉽게 지혈이 된다. 약 10분 이내에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압박의 강도가 약했거나 압박부위가 잘못된 것이다. 압박부위를 교정하고 수건이나 거즈 등을 덧대어서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한다.

이렇게 해도 계속 심하게 출혈이 되는 경우 끈이나 고무줄 등을 이용해서 출혈부위의 근위부를 적당히 묶어서 출혈을 줄일 수도 있다. 이후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다가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경우

화상을 입으면 우선 불에 탄 의복, 시계, 반지 등을 재빨리 제거한다. 이후 약 20~30분간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로 식혀서 통증을 줄이고 조직 깊숙이 화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물에 담글 수 없는 부위라면 찬물을 거즈나 수건에 적셔 화상부위에 대 줄 수 있다.

하지만, 차가운 얼음 혹은 얼음물을 장시간 환부에 직접적으로 대어 주는 것은 추가적인 조직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집이 생긴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터트리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발목을 접질러서 붓고 아픈 경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주위에 얼음이 있다면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고 수건 등으로 싼 다음 상처 부위에 약 20분 동안 올려주면 붓기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염좌의 경우에는 3~4일간 냉찜질로 부종을 예방하고, 이후에는 온찜질로 부종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119로 신고하여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자력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부목(막대, 골판지 등)으로 고정시켜 주는 것이 추가적인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더운 날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힘이 없이 쓰러지는 경우

대부분은 열탈진이다.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활동하면서 충분한 수분섭취가 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힘이 없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감기 증상으로 오인되기도 하며, 체온이 40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의식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치료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해주며, 시원한 물을 몸에 뿌려 준 후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하여 체온을 감소시키고 이온 음료 또는 물을 마시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의식이 저하된 경우에는 절대로 음료수 등을 먹게 하면 안되며, 증상이 심하거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해파리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방법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쏘인 부위가 붉게 변하며, 따끔따끔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우선 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 쏘인 부위에 해파리의 촉수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것으로 부드럽게 긁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촉수를 제거한다. 식초는 가시세포의 독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용 식초 용액에 상처부위를 30분 정도 담구거나 식초물을 수건에 적셔 환부에 대어 준다.

수돗물로 상처를 세척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 바닷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의 전신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우리 의대가 지난 6월 11일 의대 강당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의대 소개,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 및 전년도 결과 분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 및 학부모들은 우리 의대에 대

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직접 울산의대를 와서 보니 더 많은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의대, 우리 의대 방문

베트남 하노이과대학위원회 Ta Thanh Van (따 타잉 반) 회장, 하노이과대학 Nguyen Lan Hieu (응우옌 란 히에우) 병원장 등 9명이 지난 6월 13일 우리 의대를 방문하였다.

이에 우리 의대 및 교육과정 소개, 소통1 강의실 및 교육과정

소개에 이어 시설 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 우리 의대는 김기수 전 의무부총장, 김승후 학장, 김용길 교무부학장, 최세훈 학생부학장, 김은기 교무의학과장, 주철현 의학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의과대학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와 보건 의료 시스템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 (진료) 활동을 선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목적: 1) 교육 -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
2) 연구 - 의학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3) 봉사 - ① 참된 진료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② 지역, 국가, 국제적 건강 및 보건의료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교육목표: 소통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 졸업성과: ① 전문직업성
② 교육과 연구
③ 소통과 협력
④ 자기 개발
⑤ 환자 진료 *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울산의대의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졸업생은 기본 수준의 진료 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을 위한 역량, 졸업 후 교육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략: ①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② 공식 교육과정 뿐 아니라 비공식 교육과정, 교육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
③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활용을 강조하여 졸업 후 교육에 대비한다.
④ 자기주도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해 평생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⑤ 교육, 연구, 진료 전반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조한다.

*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 6년간의 기본의학교육 (Basic Medical Education)을 마친 후,

- ① 다양한 의료의 영역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전문영역에 대한 졸업 후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졸업 후 단계에 따라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p>발전기금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약정)서」 작성 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 • 자 동 이 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p>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대학 장학금: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위임: 의과대학 관련 기타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p>발전기금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2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후원 (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 자 동 이 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p>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용도: 병원발전기금 선택 (v) • 세부 내용: 지정 선택 (v) 후 아래 세부내용을 선택하여 기입 울산의대 발전기금 / 울산의대 교육연구기금 (LCME)

기부 및 후원 안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 및 후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로서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후원자 분들의 기부에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약정서 및 기부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의과대학 기획총무팀 이정현 02-3010-4214, jaylee0131@ulsan.ac.kr





미션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교육
목적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육성

교육
목표

소통 · 윤리 · 창의

소통과 협력



교육과 연구



자기개발



전문 직업성



진료



[졸업 성과]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